

편집자의 말/ 이 글은 목회전문월간지 [목회와신학] 2003년 3월호 에 실린 것으로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게재합니다 (<http://www.durano.com/moksin>)

21세기에 적합한 지도를 갖고 일하는 사역자가 되십시오

강준민 / LA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 2003. 3
(요약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렘 33:2). 새 역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끝없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되풀이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조지 산타야나(George Santayana)는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되풀이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우리 과거의 산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과거 속에 살아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과거 속에 살지 말고 과거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변질될 수 없는 원리와 법칙을 배워야 합니다. 영원한 진리를 배워야 합니다. 그 진리 중에 하나는 살아 있는 것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은 것은 살아 있지만 이미 죽은 것과 같습니다. 헨리 포드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장례식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사소한 문제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어 있는 물고기는 시냇물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 있는 물고기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살아 있는 물고기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 있는 교회는, 변화를 따라 가는 교회가 아니라 변화를 주도해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진정 살아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새 역사를 창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좋아하면서도 익숙한 것을 경멸합니다. 익숙한 것을 무시합니다. 나폴레옹 황은 “익숙한 것일수록 불평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새 옷을 좋아합니다. 새 신을 좋아합니다. 새 상품을 좋아합니다.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같은 진리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변화와 다양성을 좋아합니다. 같은 진리라 할지라도 다른 모양으로, 다른 언어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 표현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인물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새 역사를 창조하는 인물은 많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새 역사를 창조했던 인물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새 역사를 창조한 인물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10명의 정탐꾼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그들을 창조적 소수자라고 말했습니다.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것은 도전적인 말입니다.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것은 새로운 일을 시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혁자의 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것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것은 모험하는 인생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역사를 창조한다는 것은 최고가 되기 전에 최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초가 모두 탁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초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최초는 기준을 만들어 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최초로부터 발전합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셨고, 시대마다 새로운 방법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역사를 창조하는 지도자, 새 역사를 창조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위해 사용하기 원하시는 새로운 사역의 방법에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헨리 블랙커비는 「영적 리더십」이란 책에서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두 번 사용하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기독교 조직이라면 그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하나님의 활동은 사람들과 시기에 따라 언제나 독특했다…하나님이 특정 방식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리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강조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마 9:17).

새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나침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것입니다. 나침반은 언제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들은 나침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아야 합니다. 새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에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정보와 지도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이 한 일은 정보를 얻는 것과 지도를 그려오는 일이었습니다. 정보는 생명과 같습니다. 모세는 정보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까닭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정보를 수집해 오도록 명했습니다.

모세를 이어 새 시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정보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까닭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해 들어갈 때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정보를 확보했던 것입니다. 21세기는 정보시대입니다. 지혜로운 사역자는 정보를 생명처럼 여길 줄 압니다. 정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좋은 지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앞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앞서 인도하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이 가 본 곳까지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까지, 여호수아는 가나안까지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가 본 적이 없었지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새로운 지도를 소유해야 합니다. 문제는 많은 지도자들이 옛지도로 가지고 새로운 땅에 들어갈려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애굽의 지도를 버려야 했습니다. 광야의 지도를 버려야 했습니다. 나침반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같은 지역이라 할 지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지도가 바뀌게 됩니다. 21세기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새 시대에 맞는 정보와 지도를 소유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정보와 새롭게 태어나는 2세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 시대에 적합한 지도를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학습과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정탐꾼들처럼 정보를 얻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습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정보와 지도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곳 사람들과 그곳 지형을 파악한 것처럼, 우리도 새 시대의 흐름을 연구해야 합니다. 새 시대 사람들을 연구해야 합니다. 새 시대에 맞는 방법과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시대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십시오. 낡은 지도를 부디 버리십시오. 새 시대에 적합한 지도를 획득해서 새 시대 사람들에게 불변하는 복음 진리를 전파하시길 바랍니다.